

치료놀이, 육아정책 실현의 한 방법

성영혜 숙명여자대학교 명예교수

육아 정책의 중요성에 대한 논의와 토론 및 정책 구현 등은 이젠 상설이 될 정도로 모든 사람들의 머릿속에 크게 자리하고 있다. 정책의 방향과 결정이 아무리 훌륭하다 하더라도 그것의 실현은 또 하나의 다른 메커니즘이에 틀림없다. 육아 정책이 잘 수립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의 실현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게 될 것이다. 육아 정책의 실현 중에서도 제 일선에서 아이들을 직접 보살피는 양육의 손길은 정책의 질, 아니 정책이 실현되느냐 아니면 실패하게 되느냐를 좌우하게 되는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정책 이상의 내용이 될 것이다.

육아 정책 개발이 하드웨어라면 육아 정책을 구현하는 육아 방식은 소프트웨어가 된다. 하드웨어가 완벽하다 하더라도 소프트웨어가 제 기능을 하나하나 제대로 이루어내지 못한다면 훌륭한 하드웨어는 시간적, 경제적 제 측면에서 큰 낭비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소프트웨어적인 양식 방법 및 양육 태도는 섬세한 손길과 정서적인 지식, 확신, 그리고 실천 등의 준비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여기에 그 중 한 가지 가장 확실하고 재미나는 양육 방식을 소개하고자 한다. 그것은 치료놀이(Theraplay)라고 하는 양육 방식이다.¹⁾

치료놀이는 놀이를 통한 양육 방식으로, 여기에서의 놀이란 양육자와 아동 사이의 건강하고 자연스러운 상호작용을 기초로 하고 있다. 또한 직접적이고 신체적인 활동으로 ‘지금·여기’의 경험을 강조한다. 즉 치료놀이는 장난감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치료놀이는 양육자와 아동 간의 기본적인 상호작용 방식에 그 기초를 두고 있다.

애착 이론, 대상 관계 이론, 자아 심리학을 배경이론으로 취하고 있는 치료놀이는 장난감이 필요 없는 놀이를 통해 아동을 건강하게도 또한 한없이 허약하게도 만들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상처를 심하게 받았던 아동도 치료놀이를 통해 상담을 받고 다시 양육을 실천한 후 심신이 건강한 행복한 아이로 성장할 수 있게 된다. 치료놀이는 ‘활동 중심’으로 접근하지만 여기서 언급하는 활동은 ‘무엇을’ 하느냐 보다 ‘어떻게’ 하느냐가 치료의 성

과를 좌우하게 된다.

초기 영아기에 영아가 양육자와 애착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정서, 사회성 발달의 기초가 된다. 이러한 애착 관계의 형성과 뇌 발달은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준다. 출생 시 영아가 가지고 태어난 두뇌의 신경 세포는 무한히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다. ‘문화의 전달자’라고 불리기도 하는 뇌의 반사 신경인 거울 뉴런(mirror neuron)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상호작용하는 경험을 통해 활성화된다.²⁾ 이렇게 활성화된 거울 뉴런을 통해 뇌는 사회적인 상황을 이해하고 판단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치료놀이의 특성 중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접촉은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따뜻함을 제공한다. 접촉은 생존을 가능하게 하고 삶을 의미 있게 만든다. 즉 아동에게 있어 접촉은 곧 살아있음을 뜻한다. 치료놀이에서 ‘놀이’의 의미는 장난감이라는 매개물이 아니라, 부모가 아기와 함께하는 초기 단계의 상호작용 형태를 뜻한다. 또한 아동이 보내는 단서, 즉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동은 치료놀이를 통해 의미를 지니게 되고 아동은 특별하고 독특한 존재가 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

치료놀이의 원리로는 구조(structure), 도전(challenge), 개입(engagement), 양육(nurture) 그리고 재미(fun)가 있다. 구조는 아동의 안전과 세상에 대한 이해를 위해 경계를 설정한다. 아기에게는 규칙적으로 자고 먹고 배설을 하는 것과 같이 계속적으로 지켜져야 할 구조가 필요하다. 성인이 책임을 지는 구조화를 통해 아동은 안심하고, 자기 자신을 통제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 부모는 아동으로 하여금 한 걸음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도전을 통해 성취감과 자신감을 경험하도록 도와준다. 걸음마기 아기가 잘 걸을 수 있도록 아기를 잡아서 걸음마를 도와주는 것과 같은 예이다. 도전을 통해 아동은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을 수용할 수 있는 자신감과 현실적 기대를 가질 수 있게 된다. 부모들은 아기를 혼자 놔두지 않고 즐거운 개입을 통해 적절한 방법으로 상호작용한다.

이와 같이, 양육은 아동과 함께 하면서 보살핌이 필요할 때마다 보살핌을 제공하는 것이며, 이러한 양육의 기능은 재미있는 놀이 활동을 통해 즐겁게 진행되어야 한다. 이상과 같은 양육의 특성은 보육 현장에서도 그대로 적용 가능하다. 즉, 아동과 교사 모두가 즐겁게 보유이 이루어져야 한다. 치료놀이를 통한 보육은 보다 쉽고 보다 확실하게 아동의 성장과 성숙을 꾀할 수 있는 방법이다.

¹⁾Schaefer, C. E. (ed.) (1998). *Therapeutic Use of Child's Play*. New York: Jason Aronson.

²⁾Rizzolatti, G., & Sinigaglia, C. (2008). *Mirrors in the Brain: How Our Minds Share Actions, Emotions, and Experience* (Frances Anderson, Tran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